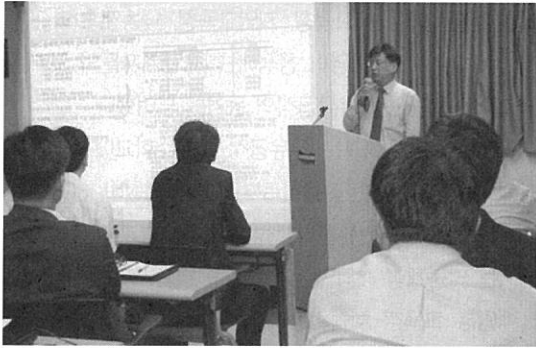


두산생물자원

두산생물자원(주) 영업회의의 실시



두산생물자원(대표 윤영호) 백두사료 영업본부는 지난 9월 17일 부천공장 교육장에서 영업회의를 실시 하였다. 본 영업회의에서는 사전에 진행되었던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의 이슈 및 결과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 졌고 향후 조직운영계획 및 방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채권관리 교육시간을 통해 채권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집중적으로 실시 하였으며, 축종별로는 각 PM들이 고 곡물가에 따른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료의 허실과 낭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했다.

백두사료는 각 시대의 이슈에 맞는 맞춤교육과 가이드 제시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NEEDS를 해결해줄 수 있는 영업사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전사적으로 일관되게 운영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중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간단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좀더 활기차고 열정적인 백두사료의 미래를 생각한다.

백두사료 동절기대비 방역실시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으로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질병예방 교육과 동절기 대비방안 지침을 통해 철저한 농가 사양관리를 컨설팅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빠른 적응이 될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발빠른 움직임이 축산농가에 전달되어 건강한 축산농가가 될수 있음을 확신한다.





두산생물자원(주) 백두사료 낙농신제품 '힐링 마스터' 출시



힐링 마스터

- 1 항산화제 강화**
 - 면역능력 증진
 - 강건성, 생산성 향상
- 2 반추위 발효안정**
 - 분해속도 기준 원료 적용
 - RUP 함량 강화
- 3 PUFA, 유기태 광물질 강화**
 - 전해질 대사 활성화
 - 호르몬 대사 활성화

두산생물자원(대표 운영호) 백두사료가 10월 낙농사료 신제품 '힐링마스터'를 출시하였다.

낙농 신제품 '힐링 마스터(Healing Master)'는 '몸이나 마음의' 치유의 전문가' 라는 뜻으로 항산화제를 이용한 유량 및 체세포 개선을 위한 제품으로, 지친 젖소에게 면역능력을 강화하여 강건성, 생산성이 향상되고, 분해 속도 기준원료를 적용하여 RUP 함량 강화로 반추위 발효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있다.

또한 전해질, 호르몬 대사 활성화를 위한 PUFA 유기태 광물질을 강화하여 고 기능성 사료를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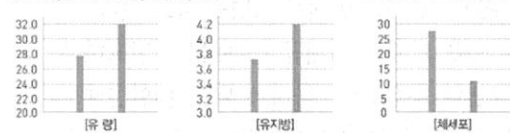
본 제품을 출시한 백두사료 윤석준 축우PM은 엄격하고 철저한 중앙대학교 연구목장에서 사양시험을 결과로서 유량 12.7% 증가, 유지

방 0.4% 증가, 체세포 17만이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했고 생산성, 수익성 향상에 모범답안이다'라며 백두사료의 현장에서 축적된 반세기가 넘는 노하우와 축적된 전문성을 강조했다.

철저하게 완비된 제품을 통해 전문화된 백두사료의 영업팀 컨설팅과 서비스 라인으로 축산농가의 힐링마스터가 탄생할 예정이며 업계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양 시험 결과 요약

(2011년 중앙대학교 연구목장 사양시험 결과)



[유량 12.7% 증가, 유지방 0.4% 증가, 체세포 17만 감소]

생산성 향상, 수익성 향상의 모범 답안~!!

우성사료 낙농신제품 “밀크하우징” 출시

수퍼카우는 만들어진다.

“밀크하우징” 이 젖소의 산유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낙농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낙농프로그램을 새롭게 내놓았다. “밀크하우징” 낙농사료와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우성사료의 45년 사료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일본 수의생명과학대, 오비히로 축산대와 함께 연구개발한 “밀크하우징 SER+DUCT program”은 젖소의 산유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진적인 낙농통합관리 프로그램이다.



“밀크하우징”이 “수퍼카우”로 가는 지름길

현재 우리나라의 낙농가 평균은 착유우 36두에 하루 1톤을 납유하며, 검정농가는 305일 보정산유량이 9,800kg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5일동안 9,000kg 이상의 산유량을 유지하면 고능력우, 최고비유기 때 하루 59kg 이상 유지하면 “슈퍼카우”라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젖소는 고능력 젖소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4위 산유량 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이런 고능력 젖소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 산유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것인가 그 해답을 “밀크하우징 SER+DUCT program”에서 찾을 수 있다.

이재규PM이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제품을 기획한 이재규 축우PM은 밀크하우징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목장에 맞는 배합설계로 반추위 능력개선을 통한 건물섭취량 증대와 고능력 젖소의 체형을 유지하고, 좋은 유질을 위한 최적의 영양밸런스를 갖추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사성 질병을 예방하고 번식능력을 높일 수 있다.



제품강화 못지 않게 농장 농장 서비스 프로그램도 강화여 젖소들의 건강관리 체크, 유성분 분석 및 평가, 사육환경 분석과 목장경영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팜스코



2012 Farmsco Activity Campaign

“No.1 파트너, 축산 IB 1위” (주)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는 지난 9월 21~22일, 2012 Farmsco Activity Campaign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번 Campaign은 양돈과 축우 축종으로 구분되어 2013년 농장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성 Campaign으로 전개된다. 국내 축산업계는 전반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 생산성의 악화, FTA 뿐만 아니라,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불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팜스코는 2013년 농장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2012년 4/4분기를 농장 내 활동을 통하여 각종 실증자료를 도출하는 시기로 정하였다.

마케팅실장(오명호 이사)은 축산업계의 불황으로 예견되는 시점에서 팜스코의 활동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생산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첫째날에 진행된 양돈 Campaign에서 양돈 PM은 양돈 시황과 전략에서 불확실성의 전망속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도출함과 더불어 Value sales를 위해서는 현장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Campaign에서는 2013년 WSY 향상을 위한 모돈과 자돈에 대한 생산성관리를 위한 활동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축산과학연구소의 환경기술팀에서는 돼지의 성장단계에 맞도록 설계된 하이포크 봉동농장을 모델화한 계절없는 돈사에 대한 설명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계절없는 돈사는 계절의 변화에도 돈사 내 환경을 최적의 조건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돈사를 의미한다. 축산과학연구소의 R&T팀에서는 리더맥스 GT 자돈 제품의

특장점과 실증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2012년 97,000두 이상의 자돈에 대한 사양시험과 필드 실증 자료를 통하여 리더맥스 GT 시리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필드 적용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둘째날은 축우 Campaign으로 진행되었다. 축우 PM은 낙농시황과 전략을 통하여 루멘임팩트 제품을 통한 목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역부장의 실증 필드 접목 사례에 대한 발표는 루멘임팩트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목장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목표를 세워 육성우 사양관리 포인트와 목장의 경영진단 분석을 통한 목장 전반의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2013년 낙농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강조하였다.

(주)팜스코(정학상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기업과 미래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과 더불어 대한민국 축산업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필드 활동을 재차 강조하였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됨을 거듭 강조하면서 금번 Campaign을 통하여 국내 축산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팜스코는 2012년 4/4분기에 전 축종에 대한 Activity Campaign을 통하여 고객에 대해서 제품의 효과를 입증하고,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농장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한다.